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투계 제2717호]

주체 111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음력 8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고 박용일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부흥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시였다.

박용일동지는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우리

김일성주석의 국가건설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자주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진보적인 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공화국창건 74돐을 맞으며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마다에 뜨겁게 어러였다.

체스요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슬로벤스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행복한 사회주의미래를 건설하여왔다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4년 려사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잇닿아 있다고 격찬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신 가장 훌륭하고 귀중하며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참다운 나라, 사람중심의 자주적인 국가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확신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내 나라의 하늘은 푸르고 인민의 마음은 즐겁다

풍요한 가을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주는 이 계절에 뜻깊은 공화국창건 74돐을 크나큰 환희속에 맞이한 사회주의조선! 지금도 축포탄들이 려이어 터져올라 밤하늘에 황홀하게 뿌려지며 일만경을 펼치던 경축의 그밤을 잊을수 없다.

밤하늘가에 람홍색국기를 휘날리던 항공록전병의 기백 있는 강하기고, 위대한 조국에 펼친 능란한 기교비행, 노래 《우리의 국기》의 송엄한 선율속에 펄떡 나뭇기린 찬란한 공화국기, 아름답고 희한한 축묘야경,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히 서있는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누가 밤하늘을 감잡하겠다고 했는가. 경축의 그밤 9월의 하늘가는 그야말로 눈부시도록 환하고 아름다웠다.

그 언제 어디서 보아도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 그래서 사람들도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이라고 그러도 절절히 노래하는 애인가.

끝없이 높고 넓은 공화국의 하늘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높이이고 넓이이다.

오늘날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과 더불어 이 나라 인민은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강국의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처럼 가장 값있는 존엄을 지니고 사는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는가.

인간의 존엄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수난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이 나라 인민이였다.

일제의 발골밑에서 울밑에 선 봉선화처럼 시들어가던 이 나라 인민들에게 진정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독립 국가의 당당한 새 주인들로 내세워주시분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되새겨볼수록 가슴뜨겁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진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고. 그래서 이인 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고 하시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새 조국건설도, 것처럼 가렐쳐졌던 조국해방전쟁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

그 나날 공화국인민들은 세인이 격찬하는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다.

나라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영웅인민을 자주적군위병으로 더 굳세게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앞에 뒤편이 내세워주고 지켜주시는 인민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더 높이 떨쳐주시려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난생처음 땅의 주인으로, 공장의 주인으로 되어 뜨거운 눈물을 쏟던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가장 70여년세월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이 땅에선 인민의 리익이 언제나 첫자리에 놓이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제일가는 중대사로 되고있다.

햇빛밝은 이 하늘아래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얼굴에도 한결 그늘을 찾아볼수 없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육아원과 교육원, 초등학원, 중등학교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의 설움을 모르고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나고있고 경치좋은 곳에 일떠선 궁궐같은 양로원들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은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그 인민의 존엄과 긍지, 자부심이 하늘에 닿았다.

하기에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면 누구나 은혜로운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을 안고 살리라고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가없이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은 자위의 억센 힘으로 하여 언제나 푸른빛 잃지 않는다.

힘이 약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침략을 면할수 없고 시련과 재난의 검은 구름으로 푸른빛을 잃은 하늘아래서 인민은 크나큰 불행에 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날 국력이 약해 식민지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업적이 달성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정녕 눈물겹게 어러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사무물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설현에 결연히 나서시였던 잊지 못할 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종 첩첩 막아서는 천만시련을 뚫고헤치며 가고 또 가신 회생적인 헌신의 그 나날들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정의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

이제는 지구상 그 어떤 적대세력도 이 땅, 이 하늘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으로 버려주신 자위의

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하늘은 벌써 침략의 검은구름에 의해 자기의 푸른빛을 잃고 말았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창건 74돐을 앞두고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전제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능적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업적이 달성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정녕 눈물겹게 어러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사무물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설현에 결연히 나서시였던 잊지 못할 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종 첩첩 막아서는 천만시련을 뚫고헤치며 가고 또 가신 회생적인 헌신의 그 나날들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정의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

이제는 지구상 그 어떤 적대세력도 이 땅, 이 하늘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으로 버려주신 자위의 억센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엔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맑고 찬란한 미래가 비껴 더없이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이다.

공화국의 70여년령정을 돌이켜볼수록 끝없는 궁지로 가슴부풀고 더욱 휘황찬란할 미래를 앞당겨올 맹세로 심장이 세차게 뛴어번진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제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 걸을모르며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덕과 정으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발휘되는 인민의 사회, 사회주의강국을 이 하늘아래 일떠세우시려 오늘도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신다.

지금도 사람들 누구나 잊지 못하며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떠나면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의 불빛 밝은 밤거리에서 인민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으시게 되시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그날 불밝은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럽없이

본사기자

본사기자

